北栗面小作人의 小作權不變을

리축타이작인압헤언명 이십일에도또작인회합

오래동안 지주권이되어오든 재령군북률면(載寧郡北栗面)봉산군사인면(鳳山郡舍人面)의소작쟁의에 대하야 동양척식주식회사경성지뎜(東拓京城支店)축타리규완(李圭完)씨가 현장에출장하야 그해결에 로력중이라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리규완씨는역시동사축타지촌(志村)씨와 동반하야십구일오후 두시부터북률면각유지제씨를방문하야일반소작인의 정황을 며개드른후동세시경에 북률면내종리(內宗里) 소작조합(小作組合)으로가서 그곳소작인 오백여인을소집한후 북률면에잇는 소작인들은 소작권이 절머의ㅅ명이라 아니할수업스니그소작권이이동되는것은 절대불가한 일임으로내가 경성에올라가서 소작권이결코 이동되지안토록 교섭할터이니 조금도 념려하지말고안심하라는등간곡한말을한후모혀든 소작인중에서 억울한사정이잇는사람은각개인으로부터 그억울한사정을 일일히듯다가 날이어둡으로 이십일오전십시부터다시회합하기로하고해산하엿다는데 이십일은 내종면소작조합원일천칠백여명이모다참석하게될모양이며 만일시간의 여유가잇스면 사인면유지들을 또방문하고그곳소작인들의정황을드를터이라더라(사리원지국뎐화)

詐欺團普天教 간데족족망신뿐

치성제는수라장이되고 소위방주란자는쥐구멍

固城開部式의活劇

경남고성(固城)읍내에잇는보텬교종교부(正教部)에서는 지난십이일오전십일시에 개부식(開部式)을거행하고수백의교도(教徒)가『삽현』을잡히고 장단을맛치어 치성제(致誠祭)를 드리는중에 청년천성락(千性洛)은 이것을 참아그대로보고 잇슬수가업다하야 식장에 뛰여올나동포의 불상한피와 눈물을싸라먹는 커들의죄악을 고성대질(高聲大叱)하는바람에 정성을다하야드리든 치성제는 고만쓺드려가고 흐지부지하게마럿스며 그날오후에는 정읍(井邑)에잇는 소위륙십방주(六十方主)의일인이란을방주(乙方主)리영호(李英浩)가교리선뎐연사(教理宣傳演士)로온다는 말을듯고 세상을속이고 피를빠라먹는 교리가엇더한것인지드러보고저 아츰부터 기다리든수천의군중은

삽시간에 모혀드러수군거리는등 공긔가 자못긴장한중에 오후두시에온다든 리영호가네시경에 도착되매 미리부터벼르든 군중은『저놈이리영호냐! 저놈죽여라 따려라 교리강연이무엇이냐!』하는 욕박과호령이사방으로 빗발치듯 몰려드러형세가 극히위험하야수라장(修羅場)이되고 리영호는림장하엿든경관의 보호를바더 경찰서에가서잇다가 그날밤자동차로 통영(統營)방면으로 도망하여 버렷다는데 백렬뎍으로 흥분된군중은 이러한 사긔단톄(詐欺團體)를그대로두는것은 디방의 모욕이라하야그날밤에청년멧사람은교긔(教旗)와간판(看板)등을모다 산산히부서바리는등 여러가지 활극이잇섯다더라(고성)

醴泉青年도 『훔치』撲滅

최후수단까지 쓰겟다고퇴거명령

례천청년회(醴泉青年會)에서소위보텬교정교부(普天教正教部)라는 간판이당디에 붓흔이후로는유형무형간 적지안은 해독을 쎄치게됨으로 이것을 박멸하기위하야 뎨일선착수로 성토강연(聲討講演)을 개최하얏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훔치쟁이들은 도전놈의굴가튼속에서 무슨아바위를 꿈이는지 밤낫숙덕숙덕하면서 동낙남낙하는고로반드시 이내면에는 엇더한흑막이숨어잇는것을[짐]작하게되야

가서 세상사람이 눈이캄캄한 거동이 날뛰가 잇스리다는하면서음萬허황한말을 짓거리는 고로이에분로한정종덕씨는 당장에퇴거(退去)하라 만일례천지경을 넘지안으면 최후의수단을 취하리라하야 약두시간동안이나 호령하다가 나종에금전수지문부(金錢收支文簿)까지검열하고 도라왓다더라(례천)

江華署는? 훔치를庇護

훔치박멸에 분개하는강화경찰서

이미 보도한바와 가티 강화중앙청년회(江華中央青年會)에서는이월십륙일에 위원회를 열고『훔치』교박멸에대하야 여러가지방법을 결의한결과 먼저위원으로 최영대(崔英大)김훈태(金訓泰)최인식(崔仁植)삼씨를 선뎡하야 소위훔치교정교부에 파견하야 모든죄상을들어 강경한설유를하고 도라와서 그들의행동여하에 따라서 어듸까지든지최후의수단을 쓰려하엿는데 십칠일아츰에 당디경찰서에서는 권긔삼씨를호출하야『훔치』교가우리에게 해독물이라 할것가트면 그것은 경찰에서 취톄할것이지 청년회에서 간섭할것은 절대로 못되는것이라하며 만약 다시그러한행동을하면 단호한 처치를 하겟다는 엄중한설유까지 바닷다는데 동훔치교에서도 넘우일반의공격이두려웁든지 간판을 뗴이고 사무소도 폐지코자하는중이라는말도잇다더라(강화)

辻川選米工盟罷 女工에게有利解決

교섭위원이교섭한결과 주인편양보로해결할듯

루차보도한바와가티 인천부 화방뎡(仁川府花房町)에잇는 십천정미소(辻川精米所)녀공동맹파업은 이래계속하야 사건이점차확대되어 작

십부일에 는녀공편부가파업하야 그정미소는 인적이고요하고 쓸쓸하기가 짝이업는바이가튼일을 당한 동정미소에서는 아모리강폭한무리이지마는그래도겁이나서 백방으로 취업시킬운동을 하여보앗스나 아모효력이업고 태도가 더욱강경함으로 황황중에잇든바 작십구일오후한시에 로동총동맹회(勞働總同盟會)의간부와 그녀공들이선출한교섭위원(交涉委員)류순근(柳順根)정수일(鄭秀日)량씨가교섭자로 동정미소를 방문하야 교섭한전말은 아래와갓다더라

(문)당신의 정미소의 금번동맹파업의 원인은 말(斗)을크게한까닭이라니 엇지하야 그다지 무법하게 말을크게하얏소

(답)그것은다만녀공들이말이적으면 쌀을헷드림으로 그것을방어하기위하야 크게한것이오

(문)당신의말은 그러나 경찰서에서도 인정하는바와 가티 전보다 쌀을만히너흔것은 사실이아니오

(답)그러케도 생각 하지오마는 이것은매매(買賣) 시와달러 혹더드려가기도 한것이지오

(문)그가튼 모호한말이 어듸잇소 혹그런것도잇다고 하나 당신네가 그말을 크게한것은 장차 쌀을만히주려고하는 권데가아니오

(답)그가튼생각을가질리가잇나요

(문)그러면 이말이 큰것으로 문데가 비등한데 엇지하야고집하오

(답)무어、다른의미로 한것이아니닛가 그러면 곳천것을쓰시오

(문)엇지하야 한말(관제)에 삼권이란것을 한말두되에 삼전식을주시오、그것은 횡포가아니오

(답)그럴리가잇슴닛가 남의 [illegible]

빗밧이日人이 債務者를칼로질러

조선인빗노이의하인으로 채무자를찔러창자가나와

[illegible]

黃州市民大會

[illegible]

安州에假刑事

일주간구류

[illegible]

遂絶命!

가족의밋침과 리인수의잔혹

[illegible]

家庭不和로自殺

젊은녀자가 목을매이어

[illegible] (안주)

興士團

금년년회에 해결일겹뎡

[illegible]

安州基督青年會 書籍輪讀會를計畫

[illegible]

엇스며 동히오는 삼월일일을긔념하기위하야 봉축에대한모게획을세웟다더라

黃州에 土疾病者

일천이백여명 귀락면이우심

황해도황주(黃州)는본래부터뎨(蹄)나지스토마(도질)가만키로 유명하곳인데 근일에 당디경찰서에서 됴사한결과 환자가일천이백십팔명이나되는 구락면(龜洛面)이 뎌욱심하야 귀백여명이나된다더라(황주)

流行感氣流行

황주디방에

근일긔후가 조치못하야 각처에유행성감긔가 발생되는 모양인데 그중황주(黃州)가 뎌욱심하야각학교에 병으로 출석하지못하는 생도가날로 증가함으로일반이 모다우려중에 잇다더라(황주)

繁榮會員 金斗淳被打

일본인압잡이하다 로농위원에게마저

이르는곳마다타매와질욕을당하는소위 시국대동단이 양양에서도소위강연을하려다가 털권세례을밧을번 하엿다함은 그시보도한바와갓거니와 그여파인지는모르겟스나 전부터 일본인에종이라는 평판을듯든 양양군 대포리(大浦里)에잇는 김두순(金斗淳)은 지난달뵈오후두시경에 그곳 학성리발관(鶴成理髮館)에서그곳에와묵고잇는 고성군온정리금강 노동동맹회(金剛勞働同盟會)의집행위원

한명찬(執行委員韓明燦)씨에게 무수한곤욕을 당하엿다는데 전긔 김두순(金斗淳)은 일본인의리익을본위로조직된소위대포번영회(大浦繁榮會)라는것을적극뎍으로 옹호하는 사람중에하나로서그날도역시번영회가일선인공동의 리익을 위하는것이니누구던지 그회회원이 되여야할지며따라서 찬성동을 하라고못지도안는말을 호긔잇게 짓거리다가그와가티 곤욕을 당한것이라는데여긔에 대하야 한명찬씨는다음과가티말하더라

귀보에 루차 보도된 빈해지(瀕海地) 관계로당지 주민의사활문뎨 가바두한이쌔에번영회라는것을 조직하야 그것으로우리의 생활에불안을 늣기게하는일본인행동에가담하여가지고남을 위협하는 놈을엇지용서할수잇슴닛가하더라(양양)

強制約婚

선생이중매노릇 하다가실패당해

함남 홍원군 동원공립보통학교(洪原郡洞源公立普通學校)녀훈도리산라(李散羅)양은두달전에 아모수속도업시 자긔고향인 평양으로 도라갓다는데 그내용을 들은즉 전긔녀훈도 리산라는원래평양고등녀학교사범과(平壤高等女學校師範科) 출신으로홍원에온지 일곱달가량되는데 자긔친모를 다리고와서 교수에노력하여오던바 동교남훈도 필모(弼某)가미혼관념으로그녀훈도에게 청혼한바 불응함으로동교남훈도 열심으로 결혼을권고함으로 이에못견데여 그와가티고향으로도가버린것이라더라(홍원)

大浦市場으로 道川面民大會

일본인의 번영회의경영을견제 사업진행은우리손에

강원도양양군도천면대포리빈해디(江原道襄陽郡道川面大浦里瀕海地) 사건에대하여서는이미 본보에 보도하엿는바 이제비로소그곳에 시장을설치코자 한다는데 그전말을듯건대 대포리에 거주하는일본인이십명가량이번영회(繁榮會)를 조직하고 정신업는조선사람멧사람을속이어도 권면의면래로현안이되여오든이 공공한사업을자긔네들멧사람이조직한번영회에서만권영하라함으로 본월구일에 도천면(道川面)각리대표자와 밋면민백여명이본면부월리(扶月里)동사에회집하야원만한해결책을강구키위하야 대포매축공사긔성회(大浦埋築工事期成會)를조직하고 협의하는중본면면장김우규(金雨奎)가 개인으로 뎨의하기를매축공사는 일본사람번영회에 양보하고협장(協場)에게 복종함이조타함으로 일반면중은 매우분개한모양으로 일면의 대표되는면장의 무력을비난하고 려

하야토의도 하지이코 회의순서를따라 역원을 선뎡하고규측을동과후 사업의 개안을데출하엿는데 고동환(高東煥)의집 부근에서 오뎐공삼(奧田恭三)의집까지 백십오간가량에비용륙천원、매평륙십원가량인바 반은인부로 반은금권으로하되 삼사년동안이면 되겟다고 개산을동과후본일 졉의사항과 규약을 면당국에데출하야 곳첫공하도록 편달하기로하고 오후오시경에폐회하엿는데 역원은아래와갓더라

會長朴祥熏、副會長李圭漢、書記陳炯瓚、執行委員十一名、專務委員四十六名、常務委員十一名(양양)

八校卒業生 聯合講演會

뎡동엡웟주최로

금야뎡동레배당에서 시내뎡동엡웟청년회주최로 내에잇는 그회에관계되는 협성신학(協成神學)과 동녀자신학(女子神學)과 리화대학(梨花大學)과 동예과(豫科) 사범과(師範科)와 동고보(高普)와 배재고보(培材高普)와 동학당(學堂) 등 여덟학교의 졸업생강연회(卒業生講演會)를 이십일오후일곱시에 개최하고 연사와 연뎨는 아래와 갓더라

教育의힘 梨花大學李順鐸

해꿀고게를넘어서 同 金愛多

現在朝鮮文學에對한吾人의使命 同師範科 崔喜淑

朝鮮青年의責任 同高普 金景道

立身의道 培材高普 元漢慶

써맛난青年 同學堂 崔致範

基督教와女子教育 協成女子神學 金마리아

基督教와朝鮮 協神 李觀運

同會에寄付

시내각서뎜에서는 아래와가티 동회에 서적을 기부하얏다고

東洋書院書籍四十部▲朝鮮圖書十部▲彰文社十部▲漢城圖書八部▲博文書館書籍若干

所謂森林主事 有夫女를弄絡

피해자의가족이야료

강원도양양군 양양면거마리(江原道襄陽郡車馬里)에 원적을둔황락주(黃雒柱)(三○)는동군서면상평리삼림보호구 (西面上坪里森林保護區)에 사년전부터삼림주사(森林主事)로재근하든바작년에도 남의부녀에게 불미한행동을하다가 발각되엿스나 비밀리에서사라젓는데또금년음정월십오일에도 상평리 정태하(鄭泰夏)의자부 김성녀(金姓女)(二六)에게도 불미하게하다가 또발각 되얏는데 정태하의장남가 전긔황락주의집에가서 방문쇠부수며 질문하기를 아래위집에서 첨하를상대하고살뿐아니라 소위 관리의명색으로 그와가튼 추행을하엿다하면서 야료를하는통에 편동사람들은 황락주의추행을 타매한다더라(양양)

平壤女子青年 音樂盛況

동정금도만헛다

지식에 주리여 배호고저하나 배홀긔회를 엇지못하야 애타는 일반가뎡부녀들을 위하야 평양녀자청년회(平壤女子青年會)에서 부내숭현녀학교(崇賢女學校)의 교실을어더 녀자야학 강습을시작하야 조흔성적을 어더오든바 금번 경비가부족하야 경비를엇기위하야 십륙일밤 숭실중학강당에서 음악연주회를 개최한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날밤시간전부터 만원이되야 장내는립추의 여디가업시되야 이것을정리하기쌔문에 시간이 걸려동밤시반부터 동회회장 박관실(朴寬實)녀사의개회사를겸하야야학에대한 간단한말이 잇슨후장현악대(長峴樂隊)의군악으로순서를싸라 열세가지 곡목을대성황리에 마치게되엿는데 이날밤일반의 동정금도 만헛다더라(평양)

巡查本位의和順署

폭행순사위협에고소취하 가해자보다피해자를학대

전남 화순군청풍면주재소 (和順郡淸豊面駐在所) 일인순사고천섭 (古川涉) 은 동면차리(車里)사는문재덕(文在德)에게상해죄(傷害罪)로

고소를당

하엿다함은이미보도한바와 갓거니와 지난사일그사건을화해하엿다는데 그화해의 내용을들은즉 권긔고천은고소당한후로 잔녹겁을 내어동면면장리병률(李秉律)씨와동소순사 김성학(金成學)을 이삼차나문재덕의 집으로보내여 화해를간청하며 한편으로는 위협뎍(威務的) 수단으로 문재덕에게권하는말이 광주검사국장(光州檢事局) 검사 가자긔의순사강습힙써의 강사(講師)이요 광주자혜의원장(光州慈惠醫院長)이라든지 전남경찰부장(全南警察部長)이 친절한관계가잇다하며한편으로는문재덕의 재산을 됴사하면서너희재산이과연얼마나되느냐나도상당한재산가니재산으로말하드래도너에게못해볼것이업다하야문재덕의마음을

두렵게하

고잇다가자난삼일밤에 권긔면장의 청으로문재덕을 면장의자력에 불러다노코고천이란사가여러방면으로사죄(謝罪)를하며또는 동면주재소의수석(首席)순사이니이런일하나 화해안해줄것이야 무엇잇느냐는 사정을하매 문재덕은여러가지위협을듯자 이런사정을하는긔회를다서화해를하고그익일에 고소를취하엿더라

原告는呼出

피고는와서취됴

이사건의화해전말은전긔와갓거

輿論沸騰

불량순사를 그냥둔다고

이사건에대하야 래후의일은 모르지만무고한량민들만부로구타하는 몸슬순사를 경찰당국에서는 아모처치가업시 그대로두고 오히려 그자를보호하야 화해를 부치려고 애를쓴일까지 잇스며 그자에게는 경찰서에서 나와서 뭇고 아모죄업시 무리한구타를당한 문재덕은 이리오라저리오라하여가지고 신문을하나 이런불공평하고 인민본위(人民本位)가아닌 경찰이 어듸가잇느냐고일반면민의여론이비등하다더라

『미역』팔다罰金

동래장에서팔든십여명 채곽긔한이아즉일러다고

십사일 동래시일에 촌부녀십여명이 미역을팔다가 경찰서에잡혀가서 벌금을오원내지 십원식무러놋코 나오기도하며 벌금낼돈을 가지지못한사람들은 구류를당한이도 적지안타는데 그부녀들은 모다농촌사람들로 먹고살것이업서서 모처럼 미역장사를하다가 그와가티 거액의돈을물게되여 매우 억울하게되엿는바 경찰서에서벌금밧는 리유는 아즉까지 미역채곽긔한이 아니라는것이라더라(동래)

慶北青年大會 發起會

이십일오전 안동읍에서

이미보도한대구청년회(大邱青年會)외칠단데에서 준비중이던경북디방청년대회(慶北地方青年大會)발긔에대한 모든준비는그동안 착착진행되야 다음과가티그발긔회(發起會)를여다더라

◇一時日及處所

二月二十日午前十時

安東火星會館 (대구)

말성만흔 平山溫泉

포악한재등은 구탕사지에서

황해도평산온천(黃海道平山溫泉)은비로부터뎡평이잇슬뿐아니라 서도디방에는 오직하나인류황디(硫黃地)로일홈이뉴흔바그도일한합병(日韓合併)이후로는평산향교(鄉校)토디가온대잇든 그온천을새삼스럽게 국유디(國有地)라하야 삼하(森下)라는일본인이 십년간대부를 하게되얏다 그런데재작년부터는 그면의경영으로 하느니일선인 조합데로하느니 하야한참경쟁이되다가 필경은경성에 사는일본인재등(齋藤)의손에도라가고마럿는데 설비의불완전한은 고사하고탕세(湯稅) 한차례에일권、이권 한두에오권식하든것을 한차례에 오권、십권식 한두에도일푼의 할인도업시 밧기뻐듯밧는데이것이 너무도폭리이요 당디밧던을 불고함이라고 인심이불온하던중 근일에이르러 당디거주민에 공동편의을 주던구탕자리까지자긔의더부구역내라고하야 황과몰노메어(埋沒)사용을방해하는행동에당디인사는모다크게분개한다더라(남천)

돈업서 먹기만하고

검사국에간조만복

경의선차련관(京義線車聯館)에잇는 조만복(趙萬福)(三三)이라는자는 지난십륙일 저녁에동류한명과함의몽시내 명월관(明月館)료리뎜에들어가서 작부에게말하기를『나는지금 경성모주식회사의 전무취톄역으로 잇는중이번에 년말상여금으로 일백삼십원을 바다서백원은 가사에쓰고지금 십원이남아잇스니 너희들은 삼십원어치만가져오너라』하고 한업시먹는중 작부들은이상히생각하고 술갑을 계산하라한즉 그자는 밧그로다라남으로 곳뒤를나여 달려가서삽아가지고 그자의수중을 됴사하여본즉 가진돈은한푼도 업슴으로당디주재소에 고발 하얏는데그자는 권일에그러한것을 종종한자입으로 일건서류와 함쎄검사국으로송치하엿다더라(동천)

順寧校紛糾 解決有望

긔디문뎨는양편의타협으로

함남영흥군 순녕면(咸南永興郡順寧面) 사립보교는 작년사월변민대회에서 보통학교 긔성회(普通學校期成會)를조직하고 이전부터 잇든사립창송영명(昌松永明)두학교재산 일만오천원과각동리 의연금이만원 합삼만오천원으로 완전한 순녕면보통학교를 설치케되엿는데 그당시에학교긔디로멋천평을긔부한다는 부흥우종림장상현(禹宗林張尚炫)양씨로부터 아모긔부가업슴으로일반은 분개하야 그들에게긔부한다는토디를학교에서 측정사든지 그러하지 아니하면 다른유지에 긔부에따라 위치를 변경하기로 결뎡한바 유지조수형(趙壽衡)씨는 동면쌍화산리일백 이십일번디 밧삼천칠백십평을긔부 하얏슴으로 즉시결의대로 위치를변경하고 제반일을착착진행중에 창송교측 에서일부반대가 일어나서 위치문뎨로분규중이던바 지난십사일 동교감독자인 군수임창재(任昶宰) 박재한(朴在翰)씨는 동군학무주임 최석륜(崔錫倫)씨를인솔하고 동교위치문뎨의 분규를 조정하기위하야당디에 출장한후 영명교대표박지양 권창렵 조수형 (朴之陽全昌烈趙壽衡) 제씨와창송교대표우종림장상현(禹宗林張尚炫)량씨를모하놋코 여러가지로 타협한결과 강차두학교를 합하야완전한보통학교를 건설하게 되리라는데 원래사립학교로도 어하금재이면 일게년경상비에 사백원을 요하는데 현재창송교는 영명교에 합하지아니하고는 아니될디경이며 영명교는 이전부터다소간 자산이잇섯는데 이제각동리의 긔부금까지 잇슴으로완전한실력의 소유자임으로 자연창송교의 양보를 어더오래동안부가 이문뎨로 판축되더라(영흥)

不良學生拘留

시내공평동(公平洞) 사십사번디 모강습소에 다닌다하는 동원(董元)(二三)은 지난십오일밤시내 창신동(昌信洞)로상에서 시내모녀학교생도림모(林某)(二○)를맛나여러가지란잡한짓을하다가경관을 맛나다라난일이 잇섯는데십구일동원은 종로에서서 십일구류에처하얏다더라

市井雜事

◇菓子商盜 경상북도김천군김천면욕뎡(慶北金泉郡金泉面旭町)일백이십삼번디 리정무(李井武)(三六)는십팔일오후 두시경에경성우편국(京城郵便局)대합실에서시내앵뎡뎡(櫻井町)일뎡목구십이번디 리복록(李福祿)의으로서아과자 삼사원 륙십전어치를 갈취도주 하다가 소관본뎡경찰서원에게뎨포되엿다고

◇正誤=本報第一千六百二十四號朝刊第二面『北栗舍人問題解決有望』이란題下記事中에『鳳山郡守李承九』氏는載寧郡守로『載寧郡守朴性宇』氏는鳳山郡守로誤載되엇기茲에訂正하는同時에李承九氏의『九』字가『圭』字로誤載된것도正誤함

휘파람

▲양주군시둔면도봉산에잇는 망월사 란절에서 중(僧) 노릇하는정보운(鄭普雲)이란 삼십구세된자는조선총독에게편지질을하다가▲양주경찰서에인치되야엄중한취됴를 바덧다는데 그의자세한사실과 편지의 내용을듯건대 그자는 부처님압해서 참선(禪)을하다가 쏍박 조는동안에자긔에몸이 텬당에올라가서 석가세존을 맛나보앗는데 세존말씀이 오라지아니하야 일미전쟁(日米戰)이 일어나면 장차일본은망하리라는꿈을꾼후에즉시총독에게 편지하기를 장차일본이미국에게 망할터이니 ▲미국사람과 예수교도에게 미행(尾行)을부치여 속속히 예방하라는말임으로 본서에서는 정신병자로돌려즉시방송

連理枝 (21)

소요산인

하나밧게업는물건

『풀』부인은『빌지니』의고통하는 원인을 알엇스나 그것을『빌지니』에게 이약이하여들녀줄용긔는업섯다

『빌지니』아!』하고모친은말하엿다『하누님일을 생각하여라 하누님은 인간이잘되도록 건강과생명을 마련가지고게시다 하누님께서 오늘날 너를시험하시는것은 래일에 그갑슬주시랴는 것이다 우리가이세상에 생겨난것은 흥종한일을하기위하여생겨난것으로만 생각하여라!』

그런데이무서운더위는바다로부터안개를몰너왓다안개는큰우산모양으로섬을둘너싸고산곡으로 모여들엇다간혹기다랏햇살이에안개에둘너잇는산곡다이로부터새여왓다이윽고삼림과들과골짝이에서는 무서운 련동소리가 돌리며 소낙비가 꼭포수가멘조다지기시작하엿다 비롯은 거품을밤어가면서 산으로부터 흘너나려 이가마속가흘물작어는 바다와가티되엿스며 집이잇는촌흥꼿은 섬모양이되고 이곳저이르러오는 풍구목은 수문을터는것가티되야 그사이로 물과흙과물과나무와 함부로 뒤석겨흘너나려다

여러사람들은 놀랏다 부인의절규로 모여들어서 몸을헤여가면서하누님의긔도를올넛다 그울음소리집웅은 모진바람에 무서운소리를내며 모든곳은 뎡험하다 멋건만은 번개와는 간단업시 번쩍번쩍와들어서 밝안의모든것이 분명히 보엿다『풀』은뷔난빗도업시 멍멍한 푸우를 무릅쓰고『도망고』외가려이집으로단이며 벼을뻐바친다 어와서는 집안사람들을 위로하야인제 꿋일긔가개인다고 설명하엿다 그말과가티 소낙비는커녁쌔부터그치고 동남쪽은 평원파가티 은은히 불어와서 비구름은서북편으로 몰녀갓다 그래서이제는 너머가는태양도 그얼골을디평선우에 나라내엿다

『빌지니』는무엇보다도먼저샘물이엇지되엿나 가보고십다고하엿다『풀』은어려워하는것가티 『빌지니』의겨드로가서 팔을내밀며 가티가자는뜻을보엿다『빌지니』는얼굴에 미소를띄우고그 팔을잡으며 두사람은 거러나갓다 공긔는 상쾌하고 산우에서는 흰구름이 피여올낫다 산은 여긔저긔에 쏘다지는물로인하야 골짝이가 패엿스나 그골짝이는 벌서 다말너버렷섯다 들는권부결단이나서 여긔저긔 패인자리가잇스며 파실나무는 대부분 걱구로박이고말엇다『빌지니』의샘은매복사가덥혀고『빌지니』의야자수는 여졋섯다 그러나 한쌍의야자수만은 옷옷이서서 청청한빗을자랑하엿다 그러나주위에는 풀도업서지고『벵가리』새가 멧마리잇는이외에는 새들도 간곳이업섯다『벵가리』새는 근처 바위ㅅ돌우에안저서 구슬푼 울음으로커의어린새기가 업서진것을 하소연하고잇섯다

이와가티 거츠러진것을 보고『소낙비는 당신이다려온 새들을죽이고 여긔다심어노흔 풀들을 업새엿구려 이세상물건은 모다업서지되 하누님만은 언제까지던지변치안는구려』『풀』은 그에대답하엿다『당신에게 무엇이고하나깃붐가? 그러치만 나는아모것도업지! 이세상엣것도 아모모케볼히면서 또말하엿다『당신은 [illegible]